

'셔츠' 활용해 개성 있는 '데일리 룩' 연출하기



데님 팬츠와 베이식하게

아우터처럼 걸치기

셔츠 위에 더하기

한낮엔 뜨거운 햇살이,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셔츠만 한 것이 없다.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베이식 아이템 셔츠로 매일 다른 데일리 룩을 즐겨보자. 'ELLE' (elle.co.kr)가 셔츠를 활용한 데일리 룩 연출법을 소개했다.

■ 데님 팬츠와 베이식하게

셔츠와 데님 팬츠의 매치는 꾸안꾸(꾸민 듯 안 꾸민 듯) 룩의 기본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베이식한 조합이다. 그만큼 스타일링 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.

우선 셔츠는 타이트한 핏보다는 살짝 여유 있는 것이 좋다. 데님 팬츠 안으로 셔츠를 넣어 입고

넥라인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단추를 2~3개 정도 풀어 오픈해 준 뒤, 소매를 자연스럽게 접어 올려주면 훨씬 느낌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다.

■ 아우터처럼 걸치기

단추를 모두 오픈하여 아우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셔츠의 장점을 심분 활용해보자. 재킷이나 점퍼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.

포멀한 슬랙스에 티셔츠를 매치하고 오버사이즈 화이트 셔츠를 걸치면 뻐한 듯 뻐하지 않은 룩이 완성되고 크롭트 톱과 트레이닝 팬츠 위에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를 걸치면 편안하고 힙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.

■ 셔츠 위에 더하기

셔츠처럼 베이식한 아이템은 레어드 했을 때 색다른 인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단정하게 잡아 입은 셔츠 위로 베스트나 뷔스티에(어깨끈이 없거나 가느다란 겹옷), 티셔츠 등을 레어드하면 패피로 거듭날 수 있다.

미니멀한 화이트 셔츠의 단추를 위쪽 부분만 잠가 입고 컬러풀한 베스트를 레어드 하거나 독특한 프린트의 셔츠 위에 톤온톤 컬러의 크롭트 톱을 입어 개성을 드러낸다면 훨씬 다채롭게 셔츠를 즐길 수 있다.

사진=ELLE



CHAPMAN CARE CENTER
Skilled Nursing and Sub-Acute Facility

채프먼 케어센터

생명을 존중하고
사랑을 실천하는 요양병원








가든그로브와 에너하임의 경계에 위치한 채프먼케어센터는 99개의 침대를 보유한 숙련되고 전문화된 준급성의 시설로 환자에게 최고의 간호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메디케어, 메디칼, HMO, PPO 보험 받습니다. 개인 사정에 따른 캐시 플랜도 제공합니다.

전문 간호 서비스

- 24시간 전문 간호사 케어
- 단기 재활 치료 및 장기 치료
- 링거 투여 (정맥 치료)
- 튜브 음식 투여 관리
- 전문 상처 관리
- 비경구영양, 정맥영양
- 당뇨병 관리
- 투석전후관리
- 근육경축/부목
- 통증 치료 및 관리
- 회복간호지원 프로그램 제공

채프먼의 특별 혜택

- 개인실 및 2인 1실 제공
- 전문 영양사의 전문 메뉴와 식습관 관리
- 일상 생활 프로그램 지원
- 모든 방에 TV와 인터넷 제공
- 미용과 이발 서비스 지원
- 사회복지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
- 종교 서비스
- 퇴원 절차 관리
- 한국 문화 프로그램 제공 (다양한 게임과 특별한 메뉴 제공)

추가 특별 서비스

- 약 서비스 (처방약 포함)
- 각종 검사와 방사선 검사
- 전문 영양사와 영양 상담
- 치과, 청각, 검안과, 발 전문의 서비스
- 심리학자, 정신과 서비스 제공
- 호스피스 간호 서비스 제공
- 위탁 간호 서비스 제공

준급성 치료 서비스

- 모든 숙련된 간호 및 재활 서비스 포함
- 호흡 치료
- 기관절 절개 치료
- 인공 호흡기 관리 및 치료

재활 치료 서비스

- 물리 치료
- 작업 치료
- 언어와 연하 치료



CHAPMAN CARE CENTER
Skilled Nursing and Sub-Acute Facility

12232 Chapman Avenue Garden Grove, CA 92840

채프먼케어센터

Tel: 714.971.5517 Fax: 714.971.5701

한국인 담당 / Faith Kim(페이스킴)

714.469.5720

faithk@chapmancare.net

입원/퇴원 수속에 관한 문의는 연중 무휴 팩스 가능